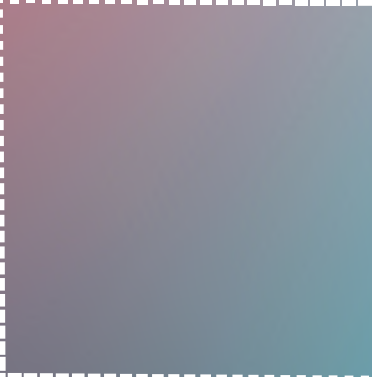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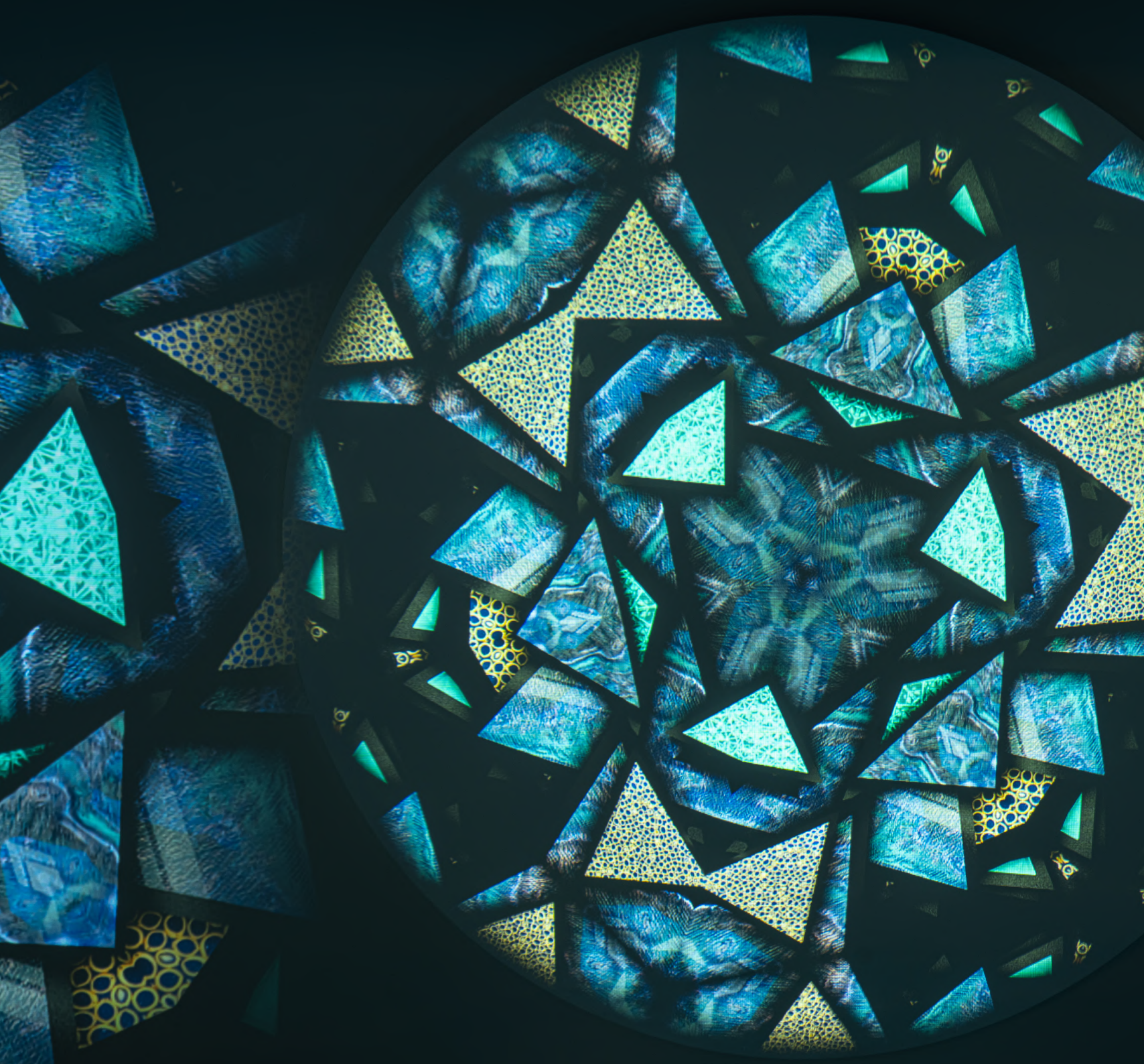


# REFLECTIONS IN MOTION



HYUNDAI  
MOTORSTUDIO  
SEOUL



REFLECTIONS IN MOTION

# REFLECTIONS IN MOTION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Reflections in Motion>展은 디자인을 테마로 한 브랜드 공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개관 전시로 지난해 4월 대중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같은 주제 하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두 번째 순회 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 제목 <Reflections in Motion>에서 ‘리플렉션’\*(Reflection)’은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두 종류의 상호작용(motion)을 내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작가와 작품 사이의 리플렉션입니다. 첫 스케치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한 작업의 의미를 넘어 작가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형성된 관점, 주변을 둘러싼 사회, 정치, 경제, 자연환경 등 모든 유기적인 작용이 반영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리플렉션으로 관람객이 작품을 마주 선 순간의 예술적이고 시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작품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관람객은 작품이 주는 감동에 반응하며 소통을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내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제품 디자인에서 첫인상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 ‘색상(color)’과 ‘소재(material)’를 통해, 현대차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헤리티지 디자인에서 개인화된 경험으로 구현된 인간 중심적 디자인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시간과 디자인의 상호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Curated to reflect Hyundai Motor Company’s design philosophy, “Reflections in Motion” was first revealed as the inaugural exhibition for Hyundai Motorstudio Busan, a design-themed brand space. Now in its second iteration as a touring exhibition, moving from Busan to Seoul “Reflections in Motion” has been enhanced for display at Hyundai Motorstudio Seoul.

The meaning of “Reflection,”\* the keyword for this exhibition, is twofold. I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s and the works they produce: from initial sketches to final art piece, the design process involves the designer creating something new which reflects their perspectives—formed by experiences from their past and their current life—and things such as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natural environment that surrounds them. Reflection can als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work and audience: as visitors interact with each work a responsive dynamism unfolds, and phenomena in the present moment are reflected in this artistic and poetic design experience.

Under the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Hyundai Motor Company has always strived to ensure that our products and service thoroughly

embody our human-centered design philosophy. This exhibition presents a look into the way we at Hyundai Motor are thinking about color and materials: two integral elements for expressing what makes a product design unique. With this exhibition, we encourage you to spend an enriching time contemplating what “reflection” means, and discover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time along with Hyundai Motor’s human-centered design philosophy, as demonstrated in the various design elements of the Heritage Series car and installation artworks that invite you to have an individualized experience.

## \* 리플렉션

사전적 의미의 ‘리플렉션’은 거울 등에 비친 모습, 빛·열·소리 등의 반사, 상태·속성 등의 반영을 의미하며, 이번 전시에서도 이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 \* Reflection

In its dictionary meaning “reflection” can be the image cast back by a mirror or other smooth surface; the reflection of light, heat, sound, etc.; and the mirroring of conditions or attributes. For this exhibition we use the expansive definition of “reflection,” encompassing all of these meanings.







# HERITAGE SERIES - PONY

헤리티지와  
하이테크의 만남

An Encounter between  
Heritage and High-Tech



‘헤리티지 시리즈 - 포니(Heritage Series - PONY)’는 현대차의 첫 고유 모델 ‘포니(PONY)’를 전동화 기술로 재해석한 현대차의 첫 헤리티지 콘셉트카입니다. 현대차의 과거 헤리티지와 미래의 하이테크가 하나의 차체에 공존하고 있어 시간의 가치와 장인정신의 완성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초기 포니 모델의 도어 디자인 콘셉트를 그대로 살린 외관으로 고전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전면부 헤드라이트 및 리어램프에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픽셀과 8-bit 그래픽을 오마주한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ric Pixel)을 적용했습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8-bit 픽셀을 디지털 디자인이 극대화된 파라메트릭 기술로 형상화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존은 실내에서도 이어집니다. 과거의 시대정신과 시간적 개념이 집약된 아날로그 진공관 형상의 클러스터는, 현대차가 보존하고자 하는 헤리티지의 가치를 표현하고 하이테크를 접목한 보존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에 탑재된 1인승 모빌리티는, 차량이 갈 수 없는 곳에서도 끊김 없는(seamless)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로서, ‘마지막 1마일’까지의 자유로움도 책임지는 인간 중심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The *Heritage Series - PONY* is Hyundai Motor’s first heritage concept car, combining heritage and high-tech, in a reinterpretation and electrification of our very first unique model: the *PONY*. The *Heritage Series - PONY* was design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ime and artistry.

On the exterior, the classic feel has been maintained by using the very same door design concept as the initial *PONY* model, and parametric\* pixels are used in the front headlights and rear lamps, paying homage to the pixel and 8-bit graphics of the 1970s and 80s. Parametric pixels manifest the pixel (the smallest unit making up an image) in blown-up form, as a design element that represents the synergy of analog and digital flowing uninterrupted through disparate eras. A stand-out feature of the interior design is the cluster of analog tube forms; bringing together a past zeitgeist and concepts of time, these tubes represent the values Hyundai Motor aims to maintain. There is also a last-mile one-person mobility device loaded into the trunk, demonstrating Hyundai Motor’s human-centered vision as a 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 to enable customers’ seamless freedom of movement and offer a distinct experience, thus enhancing the value of life for humanity.

## \* 파라메트릭

디지털 디자인 기술을 극대화한 기하학적인 알고리즘(데이터나 수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도형이 생겨나는 것)을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 전통적인 방식인 드로잉이나 스케치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생성되는 선, 면, 각, 도형들을 활용해 자동차 디자인에 반영함.

## \* Parametric

Using a geometric algorithm (the formation of figures according to data or formulae) that maximizes digital design technology as a design element. Creating lines, surfaces, angles, and figures not by the traditional method of drawing or sketching but through digital data, and reflecting them in car design.



# PONY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담은 차,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

A Car with Timeless Value,  
Korea's First Independently-  
Made Model: PONY

1975년 12월 첫 생산된\* '포니'는 현대차의 첫 고유 모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로, 포니의 탄생은 곧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의 디자인으로 시작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일부 부품만 수입해 국산화를 90%로 완성한 한국 고유의 모델 포니는, 한국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제작하여 한국인의 취향과 체격조건, 국내 도로 사정과 운행 조건에 최적화된 최초의 차량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Timeless Value)’라는 콘셉트는 포니 첫 모델이 탄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현대차 차량 내·외장 디자인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말 그대로의 가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포니 3도어’ 차량은 1980년에 출시됐으며, ‘헤리티지 시리즈 - 포니’ 디자인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Beginning production in December 1975\* as Hyundai Motor Company's first unique model, and Korea's first independently-made car, the birth of *PONY* is synonymous with the advent of the Korean auto industry.

Designed by global designer Giorgetto Giugiaro at the Italian design company Italdesign as a model unique to Korea, *PONY* was made up of Korean technologies and completed with 90% of the car being Korean-made, with imports used only for certain parts that could not be produced domestically or that domestic technological capacity had yet to master. In particular, *PONY* had the absolute advantage of having been made specifically for Korean drivers. It was tailored to local preferences and typical physiques, and well-suited to the domestic road conditions of the time.

From the moment the first *PONY* model left the drawing board, and as our brand has continued up to now, the concept of “timeless value” has been applied in various ways to the interior and exterior design of Hyundai Motor vehicles.

The “*PONY 3 door*” on display here was released in 1980 and served as the inspiration for the design of the *Heritage Series - PONY*.

\* '포니'는 1974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55회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스포츠형 세단 '포니 쿠페'와 함께 처음 공개됐고, 이 모터쇼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후 포니는 1975년 12월 첫 생산, 1976년 2월 첫 시판됐다.

\* PONY was unveiled at the 55<sup>th</sup> International Motor Show in Turin, Italy, in October 1974, along with the sport sedan PONY Coupe. With this Korea became the 16<sup>th</sup> nation in the world to have its own unique car model. The PONY then went into production in December 1975 and first went on sale in February 1976.





## COLOR & LIGHT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자,  
감각을 일깨우는 직관적 경험

The Environment All Around Us,  
an Immediate Experience Awakening  
the Senses



컬러 디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컬러는 빛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인상을 창조해냅니다.

색상, 색조, 질감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컬러는 제품을 넘어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컬러의 제품을 만나게 될까요? 그 컬러는 우리의 어떤 개성을 설명하고, 감각을 전하며,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가는 컬러와 빛의 시각적인 작용에 집중해 보세요. 햇살과 고감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자인의 순간에 참여해, 완전히 개인적이고 새로운 현상을 만드는 영감의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Color design is a powerful tool that enables us to experience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s us immediately through our senses. Mingling harmoniously in space, color and light create innumerable varied effects.

Colors—materialized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 of aspects such as hue, tone, and texture—are fundamentally important design elements which determine the first impression not only of a product but of an entire brand. What color design might we encounter on products in the future? How much individuality could be revealed through color, and what new interactions between unique individuals might it give rise to?

Try focusing on the figures that are reflected in color and light according to your movement, and notice the amassing visual effect. Experience the influence that your presence, in commune with sunlight, has on a design which is constantly in flux.



# MATERIAL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이 제공할  
인간 중심적인 경험

Future Mobility Design to Provide  
a Human-Centered Experience

현대차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은 운전자와 탑승자에 맞춰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생활 공간의 연장입니다. 개인의 취향, 선호, 욕구가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에 적용되면, 사용하는 모든 순간의 감각에 맞춰진 색다른 경험이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의 아이디어와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하며 일상을 디자인합니다. 자동차의 내부 공간도 개인화된 맞춤 설계를 통해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공간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는 진보된 생각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의 조합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무한한 구성을 만들어내는 만화경을 통해, 소재들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흐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future of mobility envisioned by Hyundai is an extension of the designed living space: individually tailored to the driver and passenger. Applying the style, preferences, and desires of each individual to a new mobility concept will create a singular experience which is customized for all the senses. We already spend our time in work and living spaces that reflect our ideas and preferences. In the not-too-distant future the interiors of cars, too, will be reborn as spaces perfected to their users through individualized bespoke design, optimizing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Here, the use and combination of sustainable materials will play a decisive role. With the artistic kaleidoscope that generates infinite new design compositions from combinations of eco-friendly materials use for car manufacturing, experience the flow of movement as various materials softly change.





# A JOURNEY JE BAAK

시간의 흐름속에서  
진정한 삶을 사유하는 경험

Experience Contemplating a Genuine Life  
in the Midst of Time's Flow



## 작가 소개 - JE BAAK (박재성),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RC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런던과 서울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2016년 VH 어워드 그랑프리 수상, 2017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참여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공간 설치 및 아트&테크놀로지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 김초롱  
사운드 디자이너 : 김동욱

## About the Artist - JE BAAK (Je Sung Park)

Media artist JE BAAK studied visual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He has since held multiple solo exhibitions in both London and Seoul. Winning the 2016 VH Award grand prix and taking part in the 2017 Ars Electronica Festival, he has continued to make work, and currently serves as the chair of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where he teaches installation and art & technology.

3D Animation Designer : Helen Chorong Kim  
Sound Designer : Dong Wook Kim

## \* RPG(Role-playing game)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를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게임.

## \* VH 어워드

현대차그룹이 2016년부터 진행해온 어워드 프로그램으로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순수예술 장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돼 2021년 4회차까지 진행됐다.

<여정(A Journey)>은 관람객들이 어린아이의 질문과 같은 상징들로 가득한 초현실적인 세계를 여행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RPG(Role-playing game)\*의 가상 현실 공간을 사유의 공간으로 변모 시켜, 배치된 상징적인 요소들과 상황을 관람객이 여행자의 시점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이라는 수행적인 여정을 통해 만나는 여러 질문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본 작품은 현대차그룹의 'VH 어워드(VH Award)\*' 제1회 대상 수상작입니다.

Passing through the artwork "A Journey," visitors wander in a surreal world filled with symbols, like the questions asked by children. This work transforms the virtual reality space of role-playing games\* into a space to think, and poetically expresses the multitude of questions we encounter in life, by invit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symbolic elements and situations placed aroun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 traveler.

※ This work was awarded the grand prix in the first Hyundai Motor Group VH Award.\*

## \* Role-playing game

A game where the player performs the role of a character whose personality is formed as they solve various problems.

## \* VH Award

Operated by Hyundai Motor Group since 2016, the VH Award program aims to discover up-and-coming media artists, support their work, an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base of the fine arts genre. 2021 marked the 4<sup>th</sup> VH Award.



# TIMELESS VALUE: TRANSCENDING ERAS TO ENCOUNTER THE NEW



**변치 않는 가치로 시대의 경계를 넘어 새로움을 만나다**  
현대자동차는 과거의 헤리티지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계승해 미래 비전을 담고 새롭게 재탄생한 헤리티지 시리즈 - 포니와 그 모티브가 된 과거의 포니 차량을 만나보세요.

**Timeless Value: Transcending Eras to Encounter the New**  
Hyundai Motor Company is striding out into the future through the heritage of our past. At Hyundai Motorstudio Seoul, meet the *Heritage Series - PONY*, which inherited the legacy of Hyundai Motor's first unique model to be reborn as a vision for the future, and the *PONY* of the past which served as its motif.



##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8

### 운영시간

09:00 ~ 21:00

### 고객센터

1899-6611

### 홈페이지

<https://motorstudio.hyundai.com/seoul>

### 주차

2시간 무료 주차(2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

무료 발렛 파킹 서비스

### 교통안내

자가용 이용 시

-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직진
- 도산공원 사거리 교차로 전에서 좌측 건너편에 위치

대중교통 이용 시

-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에서 145, 440, 4212번 버스 탑승 후 제일은행, 호림아트센터 앞(정거장)에서 하차
-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 직진 후 서울세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약 500m 직진

## HYUNDAI MOTORSTUDIO SEOUL

### Address

738, Eonju-ro, Gangnam-gu, Seoul, 06054, Republic of Korea

### Opening Hours

09:00 ~ 21:00

### CS Center

+82(Korea)1899-6611(09:00~18:00)

### Official Website

<https://motorstudio.hyundai.com/seoul>

### Parking

Free two-hours valet parking

(₩1,000 for every 10 minutes after 2hours)

### Direction

By Car

- Go straight toward Sinsa subway station from the intersection of southern Yeoungdong-daero.
- Hyundai Motorstudio is located across from the left before Dosan Park intersection.

By Public Transportation

- Take local bus 145,440,4212(exit 1) from Sinsa subway station of line number 3, and get off at Cheil Bank, Horim Art Center station.
- Go straight toward Seoul Customs intersection from Hakdong subway station of line number 7, and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and go straight about 500M